

학술기획

한국언론의 위상과 현실

권력과 자본의 논리에 얼룩진 言路

언론 민주화를 위한 운동

I. 지배언론과 대항언론

해방후 남한의 언론사를 살펴 보면 권력에 의한 탄압과 통제 그리고 이에 대한 굴종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미군정과 자유당 정권, 유신독재를 거치는 동안 진보적 언론매체가 말살되고 권력에 의한 언론의 억압, 자본의 의한 통제의 강화로 지배언론은 민중을 우민화하는 첨병으로서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해왔다. 유신시절에는 유신헌법에 앞장서고 5공화국에서는 '정치군인'을 난세의 영웅'으로 조작하는등 권력과 불기분의 관계속에서 소수 권력자들의 사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권위주의와 위선(?)을 절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언론에 대한 투쟁의 깃발은 민중의 자연발생적인 저항인 언론운동에 자극된 제도권내의 양심적 언론인의 자유언론실천투쟁'으로 그 첫발을 옮겼다. 79년 동아-조선의 언론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산물이 그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언론노동자 자신을 규정하고, 나아가 유신독재의 합리화를 조작하는 첨병이 되고 있는 현실에 분개하여 '자유언론실천투쟁'에 나선 것이다.

물론 이투쟁은 당시 운동여당의 미성숙과 시대적 한계로 인해 민족민주투쟁운동의 관점에서 출발했다기 보다는 즉각적 대응에 가깝지만 당시로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획득했다.

제도언론 매체의 개선이(변혁이 아닌)언론운동의 과제로 인식되고 권력과 언론독점자본에 대한 정서적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80년 언론대학살 이후 전개된 폭압적 상황은 제도언론 개선투쟁으로는 한국사회 민주변혁의 요구를 완전히 수렴할 수 없다는 인식을 일깨워 주었다.

권력과 일체가 되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언론은 민주세력의 주역으로서 담은 대항언론을 생산하는 적극적인 언론활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이는 민중 스스로 표현기관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당연한 요구였다.

II. 유인물에서 합법언론으로

1)노동자 언론
노동자 언론은 87년을 기점으로 많은 신규노조의 건설, 어용

노조의 민주노조화, 전노협의 건설등을 통해서 발달하였다. 노동자언론의 발전은 노동조합 신문의 대규모 발행, 정치신문의 활성화, 노동잡지와 노동자신문의 발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87년 민주항쟁과 연이어 일어난 7. 8월 노동자대투쟁의 영향으로 노동조합 소식지는 노동조합 신문으로 발달하였다. 노동조합 소식지가 노동조합신문의 형태를 띠고 본격적으로 발행된 것은 87년 노동자대투쟁과 87년 말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신문은 이전의 전단, 팸플렛, 노동소식지에 비해 첫째, 지면이 증설되거나 등사본에서 복사나 마스터본으로 바뀌면서 신문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내용도 보다 충실해졌다. 둘째, 이전의 부정기적이고 몇회의 발행에 그쳤던 것에서 정기적, 지속적인 발행을 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신문의 활성화와 함께 사상투쟁의 장으로서 정치신문도 활발히 나오게 된다. 이는 87대 총선거 당시 첨예하게 정파간의 입장 차이가 노정되면서 활발하게 발행되었는데 노동조합신문이 대중성에 근거해 지도성을 제시한데 비해 정치신문은 지도성을 강하게 띠었다.

노동조합신문이나 정치신문의 발행, 비합법 기관지적 성격과는 달리 이를 기반으로 정식등록에 의한 노동자 잡지와 노동자신문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현재까지 발행된 노동잡지는 '노동해방문학', '대백', '노동문학', '월간 노동자' 등으로 이중 '노동문학'과 '월간 노동자'는 휴간상태이고 '노동해방문학'은 계속되는 탄압으로 정간판에 회

걸'과 '민중생활소식'이다. 민중연의 이 양대 기관지는 제도언론에 대항하는 민족민주언론의 공식대두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민중연의 길'과 '민중생활소식'의 공개성은 당시의 각 민주단체의 비합법적 위상이다. 이에 규정되는 언론매체를 고려할때 제도언론과 공개적인 투쟁을 벌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비합법기에 나온 반합법 매체로서의 이 신문 잡지는 경제적 취약성등으로 보나 많은 대중을 확보해 내지는 못했으나 한정된 선일자리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대중에게 폭로해 내었다.

89년에 나온 민중연의 기관지 '민주통일' '민중의 소리'는 제도언론이 외면한 진상의 폭로, 고발의 선동적 기능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운동의 방향 정립과

80년 이후 노동·재야 필두로 제도권한계 극복 시도 언론운동, 전문성·대중성 살린 변혁의 디딤돌 돼야

각 부문운동과의 연대를 꾀했다. 재야언론중에서 제도언론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보도기능을 가장 집중적으로 수행한 것은 '말'이었다. 처음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라는 단체의 기관지로 발행되었던 '말'은 이후 합법적 대중지로 전화하게 된다.

재야언론은 88년에 접어들면서 부문조직들의 반합법 공개조직언론으로 재편되고 이는 다시 전민련등의 기관지인 '한겨레신문',

대자보는 84년부터 게재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신속성, 대중과의 접촉이 용이한 특징으로 인해 현재에까지 가장 대중적인 선전·선동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후 대학내의 언론은 대부분 운동에 비해 다양하고 열정적 양의 선전물을 발행하게 되고 공식적 언론으로서의 '대학신문'또한 자기위상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예초에 대학의 부속기관으로서 주어진 공간속에서 기지주체들의 저항의식으로부터 출발한 대학신문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80년대 중반 담양적인 차원의 변혁운동론을 선전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보인다. 이후 87년 민주대투쟁을 겪으며 그간의 좌·우편향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매체혁신'이라는 과제로 단절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중성에 기초한 민족민주언론으로 정착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최근에 대학신문의 파급력을 분해하고자 '행례'지고 있는 정권과 학교를 대리로

으로서의 '한겨레신문', '노동자신문'의 창간은 그동안 지배세력의 대변자로서의 제도권언론(합법언론)내에서 본격적으로 이데올로기투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민족민주언론운동에 큰 획을 그은 일일 것이다.

III. 제도언론내의 민주언론운동

74년 신문노동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10년이 넘도록 언론노조의 조직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후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겪으면서 한국일보사에 노조가 건설되고 뒤이어 동아일보, 태평양신문사, 대한일보사, 대한방송 보도국 기자들이 방송언론의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이라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현실에 안주한 채 진실을 왜곡 조작함으로써 전국민의 여망을 외면해 왔음을 반성하며 공정한 보도로 국민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면서 홍선일 사장등 관련 경실 집권권등을 보위하는 것도 대한언론의 당면과제일 것이다.

4)한겨레신문, 주간전국노동자신문의 대두

80년 후반 '한겨레신문' '주간전국노동자신문' 등의 창간은 민족민주언론운동의 대진현으로 볼 수 있다. 그간의 수공업적, 지엽적, 선전의 수준에서 전 대중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선전해 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것이다.

창간기금 50억원과 117억원의 발전기금이 국민의 자발적인 출연에 의해 모금되어 건설된 '한겨레신문'은 합법민주언론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이후 문명상의 문제에 있어서 광고 의존도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노동자신문'은 분명한 노동계급의 당파성을 견지한다는 원칙하에 통신문제도를 두는등 제도적으로 노동자대중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 자금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운영상의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창간과정에서부터 전노협의 공식적인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후 '노동자신문'의 자기기능과 운영상에 있어 여러가지 난점을 안겨 주고 있다.

이상의 몇가지 합법 대중언론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면서 홍선일 사장등 관련 경실 집권권등을 보위하는 것도 대한언론의 당면과제일 것이다.

정부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과 관련된 혐의의 연행되어 수사를 받은 한 사람이 가족과의 면회에서 경찰직원에게 무수히 구타당했다는 사실이 며칠전 일간지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다.

더구나 최근들어 본교생을 비롯한 대학생들의 연이은 연행과 구속,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사실은 정부의 대 법외정당정세에서 의미하는 범죄자는 결국 사회개혁을 위해 앞서서 일하는 민족민주세력이 대반이라는 것은

12월 탄생하게 된다.

각 언론사 노동조합은 언론본연의 비판적 기능과 공정성을 상실한 보도태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공정보도의 실현을 위해 각 노조에 설치된 기구로는 한국일보의 언론연구위원회, 동아·중앙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의 공정보도위원회, 경향신문의 자유언론실천위원회, 문화방송의 공정방송위원회, 그리고 KBS의 공정방송추진위원회 등이 있다. 명칭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각 노조는 이와 같은 공정보도를 위한 소위를 구성하고 공정보도 활동을 실제 지면 및 방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화사측 대표와 조화롭게 대립으로 구성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를 제외한 동아, 경향, 한국, 서울, KBS, MBC등은 노사양측 대표 동수로 구성되는 정책적인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여기에서 신문지면 및 방송프로그램을 분석, 불공정보도의 시정을 협의하고 있다. 중앙노조는 공정보도위원회의 대표를 편집회의 및 제작회의에 참여시켜 공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기도 하다.

노조는 나아가 공정보도를 보다 확고하게 담보할 수 있는 편집권 독립의 제도적 장치, 즉 편집책임자의 임명에 노조의 의견 반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글심는 순서

한국 언론의 위상과 현실

1. 형성과정과 현주소

2. 정부의 합송구조 개편과 언론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3. 언론민주화를 위한운동

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의해 대기업으로 성장해 왔고 이로 인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편집책임자는 권력과 경영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노조가 편집권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편집권의 독립을 위한 투쟁은 부산일보 노동조합의 편집국장 직선제를 위한 투쟁 이후 본격화되어 부산일보, 대전일보, 대구 매일신문이 편집국장 복수추천제를 관철 시켰고 경인일보, 한국 경제신문 등이 임명동의제, 한겨레신문, 충청일보, 전북일보가 직선제를, 광주일보가 해임동의제를 도입하였다.

IV. 민족민주언론운동의 전망

오늘날 언론매체 특히 신문과 방송은 지배의 도구 또는 기존세력의 유지수단으로 간주된다. 언론매체는 권력의 획득과 유지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력집단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기 어렵다.

하지만 이같은 언론의 특징은 민족민주세력에 언론에 대한 더많은 관심과 새로운 고민을 제기한다.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 전파 수단으로서의 언론은 민족민주세력에 대해 의식화 조직화의 수단으로써 언론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고 언론을 통한 지배권력의 획득이란 점에서 언론을 변혁의 무기로 활용해야 할것을 요구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더이상 제도언론이 질타의 대상으로 축한다거나, 민족민주언론매체가 그에 관심있는 일부 편집자들에 의해서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제도언론의 감시나 노조활동에 대한 관심, 나아가 민족민주언론매체의 건설과 광범한 대중적기반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민족민주 세력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변혁운동을 승리로 이끄는 관건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각 부문언론운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대중성을 갖추어나가야 한다. 이외의 토대위에서 전체적인 언론운동의 통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현재와 같이 전체 변혁운동에 있어 사상적, 조직적 통일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는 쉬운것은 아니나 민족민주언론운동의 역할자체가 전체 운동의 통일 단결에 하나의 다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제도언론의 노동운동과의 연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과거 KBS투쟁에서 제도언론을 중심으로한 시민운동의 맹아적 형태가 나타났으나 그 축적물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언론노조의 연대투쟁은 제도언론 내부의 민주적 언론인을 견인하고 '제도언론'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도가 될 것이다.

김인철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간사>



애국주의자의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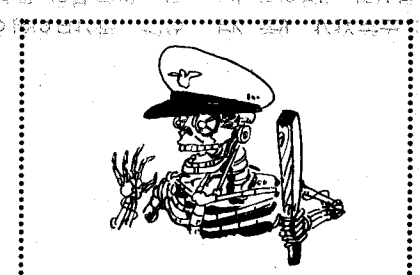
얼마전 일문각각의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상영을 끝내고 2편의 여주인공을 뽑는 광고가 스포츠일간지 광고로 나온 것을 본적이 있다.

김두한이라는 한 사람을 그 영화에서는 완전히 일체로 대항하여 싸우는 독립투사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김두한이라는 영웅의 그 이면에는 수많은 공산주의자 혹은 공산주의 혐의가 있는자를 죽이고 잡아들이는 공산주의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정부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과 관련된 혐의의 연행되어 수사를 받은 한 사람이 가족과의 면회에서 경찰직원에게 무수히 구타당했다는 사실이 며칠전 일간지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다.

더구나 최근들어 본교생을 비롯한 대학생들의 연이은 연행과 구속,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사실은 정부의 대 법외정당정세에서 의미하는 범죄자는 결국 사회개혁을 위해 앞서서 일하는 민족민주세력이 대반이라는 것은

불을보듯 뻔한 사실이다. 더구나 이와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 한편에서는 경찰의 임의동행시간을 3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고만하고 있으니 그 속내마음이 더욱 파악된다.



임의동행시간을 3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린다는 것은 바로 현재도 일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임의동행시간이 한때는 불합리한 것은 경관 자신의 주관에 따라 불합리하다는, 즉 불합리하다고 싶으면 불합리하다고 풀 어주고 싶으면 풀어주는 주관적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최고의 자본주의 나라 미국에서는 한때 '애국주의자의 범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다. 이 책은 미국정부와 미국의 애국자들이 국내에서 소위 '공공·죄정' 사상을 박멸하기 위해서 무슨짓을 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반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서슴치 않았는가 하는 사실에 대한 폭로를 그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애국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라는 구실과 명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부도덕하고 불법적이고, 추잡한 음모와 파괴공작을 서슴치 않았던 그 적나라한 기록이 국민들에게 알려져 커다란 선회이성을 일으키고 있다.

이념의 포로가되어 인간성이 경시되고 마구 사살되는 사회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승만정권의 그릇된 반공주의와 이의 추종세력의 폭력이 국민의 분노를 샀고 5공공화국 정부가 박정희열사의 고문치사를 계기로 무너졌음을 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최근 일련의 국가보안법등의 일반범죄자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열렬스럽기까지 하다. 결국 애국을 빌미로 한 반애국, 반민족적 범죄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SAM YANG GROUP

함께 미래를 펼쳐 나갑니다

기업이미지 설문조사

응답자 성명	(남, 여)	대학교(원)	과	년제학
주 소	(우: -)	Tel. -		

※ 본 설문은 당사의 채용 및 홍보에 관한 정보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성의있는 참여와 답변을 요망합니다.

1.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① 경제적 안정 ② 사회적 체면 ③ 자아실현 ④ 사회에 대한 봉사 ⑤ 대인교류

2.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구하는 바는?
① 재력 ② 신분적 지위 ③ 진리탐구 ④ 사회적 기여 ⑤ 인간관계유지 ⑥ 쾌락

3. 개인주의에 대한 견해는?
① 사리사욕 ② 합리적 사고이다 ③ 긍정적이지만 불쾌하다 ④ 서구적이나 우리도 배워야 한다 ⑤ 지양할 것이 많다

4. 졸업후 희망직종은?
① 일반기업체 ② 국영기업체 ③ 외국기업체 ④ 금융계 ⑤ 공무원 ⑥ 연구기관 ⑦ 언론계 ⑧ 교육계 ⑨ 자유업 ⑩ 진학 ⑪ 결혼

5. 회사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① 성장성 ② 안정성 ③ 급여수준 ④ 회사규모 ⑤ 최고경영자의 면모 ⑥ 선배·연고 ⑦ 승진속도 ⑧ 사품 ⑨ 임금 ⑩ 회사의 사회공헌도

6. 일반적으로 기업체를 잘 알게되는 경로 두가지를 선택하십시오.
① 기업광고 ② 2차 3차 ③ 제품 ④ 선배·친지 ⑤ 기업설명회 ⑥ 산업시찰 ⑦ 산학협력 ⑧ 사육위치

7. 삼양사에 대한 귀하의 이미지는?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나쁘다 ⑤ 아주 나쁜 편이다

8. 삼양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일 경우 그 이유는?
① 회사의 건설성 ② 대외적 공신력 ③ 노사협조 ④ 지역사회발전에의 기여 ⑤ 지속적 성장 ⑥ 인화적 회사문화 ⑦ 주주사회의 질서

9. 우리나라 기업의 북방진출에 대한 견해는?
① 시기상조하다 ② 실익이 없을 것이다 ③ 잘 모르겠다 ④ 효과가 있을 것이다 ⑤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다 ⑥ 전대 진출에서는 안된다

※ 응답해 주신대 감사드립니다. 응답자중 500명을 추첨하여 고급 기념품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업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보통택 : 서울 중로구 영등포로 263번지 (주) 삼양사 총무부 인사과 설문조사 담당자 앞 (우편번호 110-470)
■기 한 : 1990년 11월 20일

삼양

● 주식회사 삼양사 化纖, 雪糖, 飼料, 水産, 精密化学 ● 삼양중주식회사 ● 신일포도당주식회사 ● 삼양식품화학주식회사 ● 삼양화학주식회사 ● 신한제분주식회사 ● 양영회 ● 수당장학회